

제42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정기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5년11월14일(금)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4시06분 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4시07분)

○소위원장 장철민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성소미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제출입니다.

1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편성되었고 또 산업통상부 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전액 99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출연·보조기관 운영비를 기관운영출연금 비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과제 내역사업 내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87억 7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제조혁신구축지원 사업은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서 1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중기부차관입니다.

2건의 감액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990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예타가 없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제조공정 AX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편성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타조사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성이 없는 사업 범위나 산업부와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중기부는 중소제조업 공정혁신 분야, 산업부는 대기업 제품의 AI기술 탑재 분야로 명확하게 나뉘져 있어서 중복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제 중복 등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87억 7200만 원 운영비 감액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때 지적하신 운영비 별도 내역 편성은 당시에 정부안 편성 일정상 이미 정부안이 제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별도 분리하는 못 했지만 운영비의 규모와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금번 국회 제출 예산 설명자료에 명확히 기재한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하의 증액이라든지 원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강승규 위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기존 사업의 사업내역이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기존의 중소 제조현장 AX 축진을 위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강승규 위원 스마트공장의 핵심은 뭐예요? 스마트의 핵심은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스마트공장은 기존 설비에 센서라든지 디지털 융합을 통해서 디지털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센서장치 등을 통해서 로봇 기능과 함께 공장에 약간의 자동화 시설 하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 단계가 있고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스마트공장 많이 가 봤어요. 제가 제조업의 CEO 출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ICT융합 스마트공장 예산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예산을 신규 편성하면서, 그것도 무려 990억, 타 부처 등에 비해서 지금 1조 원에 가까운 것을 하면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의 기존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예타 면제도 문제가 없고 계획서 없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ICT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를 990억짜리를 어떤 예산 하는지 계획서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지원 분야라든지 중점 추진 방향 그리고 과제……

○강승규 위원 중점 추진을 어떻게 하시는 건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크게 산업재해 근절이라든지 인력난, 여러 산업……

○강승규 위원 산업재해 근절을 AI를 갖다가 어떻게 근절시킬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를 들면 제지 산업의 경우에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산업재해 예방 플랫폼……

○강승규 위원 디지털트윈 기반이 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디지털트윈은 가상의……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데, 990억 원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내가 하나하나 용어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 계획서 하나 없이, 990억이 어디 뭐 껌값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확산한다고 하니까 문제없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차관님의 우리 국회에 대한 자세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좀 갖고 와 보세요, 사업계획서. 이것 보류시켜 놓고 심사하기 전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990억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이것은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여기 국회가 무슨 동네 학구방입니까? 990억 예산을, 제가 ICT 스마트공장이 뭔지 모르면 그냥 금방 속을 뻘했어요. 거기에다 그렇게 해 놓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차관님의 태도부터, 아예 그냥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어떻

게 스마트에다가, 스마트하고 AI하고 같아요? 그렇지요. 스마트에 인공지능을 좀 넣으면 더 스마트해지겠네요. 지금까지 스마트공장이 그렇게 해 왔어요? AI를 넣었어요? 지금까지 중기부에서 추진한 스마트공장이 얼마나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3만 5000개……

○강승규 위원 3만 개에 대해서 거기 AI가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된 스마트 공장을 한 개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금년부터 AI 스마트 공장……

○강승규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 내역도 갖고 오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과 AI 스마트 공장 구축 내역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거 갖고 오세요. 그거 갖고 오시고 이거는 보류를 했다가,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990억 원을 해야 된다는 계획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에서 이런 AI 응용 제품에, 사실상 하나의 비슷한 거다, 확장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궁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지금 국회가 예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입법권하고는 다르게 예산 편성 단계를 거친 편성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법안은 국회가 전적으로 처음부터 발의부터 의결까지 다 관리하고 세부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그게 국회 본업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편성 권한을 정부에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예산 항목 편성이 매우 전문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국회의원 300명과 여기 한 2000여 명의 국회 인력 가지고 정부 예산 700조의 세부 내역을 편성하는 건 어려워요. 편성된 거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정책 기조가 맞느냐, 올바른냐, 이 정책 기조에 부합하게 쓸 수 있는 사용 방법이나 절차가 규정돼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인데.

특히나 AX 관련된 거는 정부가 이러이러한 사업에다 돈을 구체적으로 쓰겠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승규 위원님께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 기업이 ‘AX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매칭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일이 해결돼야지 AX를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시장이 주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제조 AI, 피지컬 AI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고 어찌 보면 미국, 중국과 경쟁해서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가는 데 되게 중요한 통로가 이 제조 AI 분야여서 이 점에서 특히 중소기업 분야의 혁신 동력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단지 강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ICT 융합 스마트 공장 여기에 편성된 거를 문제를 삼으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초기 상태의 AX가, DX에서 AX로 넘어가는 과도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존 사업의 위에 얹어서 한번 해 보고 이거 좋다 그러면 990억 원이 아니라 9조 9000억 원을 투입해도 안 아까운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 점

에서 저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AX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브릿지로 연결하는 사업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한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기부에서 지금 강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에 맞게 개별 사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펼칠 거다라고 하는 세부 계획을 좀 잘 설득하셔서 이거는 꼭 통과를 시키도록,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허성무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거 조금 빠르게 보류하는 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나올 것 같긴 하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일단 한번……

○허성무 위원 아닙니다. 저는 길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게 스마트 공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AI가 융합되는 문제 이거는 대한민국 제조업과 ICT 융합해서 스마트화하는 초기 사업부터 제가 창원시장 할 때 다 관리를 했던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서 절실한 것이고요. 이것이 늦춰지거나 등한시된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완전 경쟁력을 상실해서 문을 닫아야 될 상황까지 몰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대안을 이걸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정부가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공장 하나를 스마트화하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국가산단 전체를 스마트화시키는 스마트 산단 산업으로 처음 2019년에 됐고 2020년부터 전국의 국가산단으로 이걸 확산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AI가 융합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초기에, 2020년 AI 융합을 할 때는 정부가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기부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중기부가 그걸 받아서 하게 된 거지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이게 너무 늦어져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상임위 질문할 때마다 이 질문을 제가 꼭 끼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또 최근에는 AI와 동시에 진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기부가 좀 나서 달라 하는 이야기를 끝없이 했고.

그리고 예산이 기초 단계는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예산 빨리 복원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중급이나 고급에 가 있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개발된 어떤 특정한 기술들을 제품 속에 또 탑재하는 것까지도 해야 되고. 그런 절박함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중국은 블랙 팩토리까지 진행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만 늦추거나 늦어지면 대한민국 제조업은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절박함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대국적 관점에서 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사실은 제조 AI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뿌리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암묵지 같은 게 지금 사라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산업의 경

쟁력 확보하는 데 대단히 중요했었는데.

산업재해 근절이라든가 인력난, 열악한 환경, 우리나라의 제조업, 특히 중소·중견 제조업 현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AI를 접목시켜서 보다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산업부하고 중복 우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기부는 중소 제조 공정 혁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권향엽 위원 그리고 산업부는 대기업 제품의 AI 기술을 갖다가 접목, 융합하는 분야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이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킨 거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은 없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소·중견 기업의 AI 응용,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해 주시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더 하실 게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어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보면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당연히 스마트 공장도 만들고 중소기업들 정말 힘든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 절차라든지 저희들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어떤 정확한, 어느 공장에 어떻게 넣겠다 설명하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볼 때는 중기부하고 지금 산업부하고 끼워 넣어서 그냥 예산만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아까 강승규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설명이나 어떻게 설치할 건지,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만들 건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저희들도 편성하고 할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까 강승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계획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어제든 시간도 너무 많이 끄는데 위원장님, 어떤 부분에서 나중에 좀 보류를 해 봤다가……

○소위원장 장철민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거 뒤에 보면 AI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걸 한꺼번에 해서 하든지……

○허성무 위원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도 보면 AI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자근 위원님이 올리신 증액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AI예요.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다 논의가 됐는데……

○정동만 위원 그거는 현장에 맞춤식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거고……

○허성무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 구체적으로 현장의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그걸 이렇게 증액 요청한 것도 있지만 원래 이게 사업이 진행될 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보급을 한다는 계획만 받아서 나중에 진행할 때 전부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그동안 스마트 공장 사업 진행했던 게 두 가지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부 주도 형이 있고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을 받고 어떻게 한다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이런 것을 짜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진행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나갔던 것인데, 물론 이것은 이미 계획이 잡힌 것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성이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간 보급해 온 방식도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고 보급했던 것이 아니라 사업 틀을 정하고 그다음 해에 공모를 통해서 수많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좀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정부와 함께 내년도 전략산업에 대해서 동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국회라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지, 이것이 재정을 투입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것이 무리한 계획은 아닌지, 그저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은 없는 것,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저희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아무리 정부가 출범하고 AI 대전환을 하고 각 부처에서 그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그동안 어떻게 돼 왔고 이 스마트 팩토리는 그동안에 어떤 단계에 있었는데 이 AI 대전환 시대에 AI 기능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고도화시켰으면 좋겠는지 그런 전략적 어프로치 등을 충분히 토론하고 그런 속에서…… 예산이라는 게 시범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무조건 비슷한 스마트에다가 조금만 더 기능을 하면 된다고 990억 원을 딱 얹혀 놓고 그것을 제안하는 담당 차관께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 제도가 있으니 여기에다 AI 응용 예산을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요청하는 자세인지 저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차관께서 국회 기능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아무리 정부가…… 전문성을 갖더라도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깐 그래서 제가 전문성 있게 국회에서…… 아니,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용을 갖고 와 보셔야, 이것은 짚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제 제가 문제 삼은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존의 사업에서 어떤 스마트팩토리를 더 확산시켜서 인공지능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인공지능팩토리라는 게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과 지금 센서기능에 의해서 자동화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니 그러면 그게 뭔지를 좀 우리도 알아야 예산을 편성해 주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어차피 또 자료도 보시고 해야 될 테지만 강승규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신 게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에다 갖다 붙인 것을 약간 부당하다고 보신 것 같은데 사업이 명확하게 다른 사업이면 저는 강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예산 소위에서 다뤄질 제안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DX하고 AX는 솔직히 현장에 가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지금 스마트공장에서 AX 전환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별도로 AX 사업을…… 과기부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과기부는 기술 개발이 전담이니까.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이 전담이니까 중소기업은 이미 스마트공장이라는 범주 내에서 이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을 스마트공장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게으르거나 야당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오해하실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우리가 지금 중국의 알리, 테무라든지 이런 저가가 엄청 공략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 시장을 지금 잠식합니다. 그런데 AI로 전환하지 않으면 단가의 경쟁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스마트가 뭐냐? 제품의 기획부터, 믹스부터 포장까지 전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상품이 나오느냐? 그래서 단가의 경쟁력을 맞춰 주고 이렇게 돼야지만 되지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구인난도 너무 심각해요. 지방 쪽은, 아래쪽은 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스마트시스템은 빨리 구축을 할수록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살고 제조업체도 살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해서 빨리 키워 내고 우리가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산업도. 그렇게 안 가면 어떤 산업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공장의 스마트화를 해서 빠른 생산과 인건비 절감, 이래서 가격 경쟁력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어떤 여당, 정권 그런 것 말고 시대가 이제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소위원장 장철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차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수립 발표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 전략을 발표할 때 사전 수요조사 같은 것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 부분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권향엽 위원 수요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0배 정도의 규모의 현장 수요가 확인이 됐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AI 도입 이런 것을 절실히 원하는 그런 과제였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이 ICT융합 스마트공장 중에 AI에 기반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업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전체를 AI로 한번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공정별로 일부분부터 도입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금번 이 사업을 통해서 공정별로 필요한 AI 솔루션이라든지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다면 중소 제조기업의 AI 확산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방금 강승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바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예산이 적절하게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정부의 지원이 현장의 수요를 한참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입장이고 삭감보다는 오히려 이 현장 수요를 조금 더 지원을 한다면 증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충분히 하셨지요? 첫 쪽지에 30분을 넘겨서……

차관님, 이미 수요조사가 된 것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리고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수요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예시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 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 게 좀 돼야 저희가 또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예산 심사가 될 텐데 일단 여기서는 보류하겠지만 이후에라도 꼭 이 사업 아닌 다른 사업들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정보와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중기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성소미 소위원장님, 출연·보조기관 운영비하고 나머지 밑에 마지막 쪽지……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예, 알겠습니다.

2번,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데이터인프라구축 사업은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를 제조AI 24로 고도화하는 사업인데 KAMP상의 데이터 활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6억 53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에 5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감액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증액안은 수용하겠습니다.

감액안의 수용이 어려운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KAMP가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표준 기반 데이터 관리 지원 등 고도화 기

능을 만들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 AX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위한 ISP 수립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 KAMP가 언제 도입된 거예요? 몇 년에 도입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0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2020년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구축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전체 소요 기간 말씀이십니까?

○강승규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년 걸렸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한 2017년, 2018년쯤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KAMP를 오픈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강승규 위원 지금 어떤 목적으로 KAMP를 구축한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제조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제조AI 활용을 위한 지원인프라 제공 기능이 있고……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든 민관협력으로 제조업계의 각종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AI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처음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한곳에 좀 모으자라는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래서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 플랫폼으로 다 모을 수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상당 부분 데이터셋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데이터셋은 구축하는데, 20년에 오픈했고 지금 25년입니다. 그러면 이 KAMP가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총 예산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강승규 위원 그런데 구축해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지금 KAMP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실적을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이것을 구축해서 제조업계에서 이 KAMP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졌고 제조업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실적을, 5년 됐으면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전통산업도 아니고, 그렇지요? 플랫폼 구축된 지 5년 운영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지요. 어떻게 돼요?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무료로 150종의 데이터셋이 구축돼 있고 유료로 142종 해서 총 300종 정도의……

○강승규 위원 150종, 140종 유료로 주는데 이것이 활용도가 어떠냐 이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미활용 상품 비율이 67.8%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미활용 비율이 67.8%인 AI 기반의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이 이게 무슨 10년 전, 20년 전 구축한 것도 아니고 AI에 기반해서 2020년 박영선 중기부장관 때 아주 의욕적으로 구축한다고 제가 보도 본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67.8%가 미활용되고 있고 제가 다운로드 수 보니까 6838회 조회 기록에 다운로드가 1343회예요. 1300회 다운로드 한 것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플랫폼이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플랫폼은 정보가……

○강승규 위원 플랫폼은 수많은 수요와 공급데이터들이 공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웬만한 2000만 원짜리 플랫폼 만들려고 해도 조회수가 100만 조회, 10만 다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제조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플랫폼을 5년 전에 만들고 그것이 다운로드 수가 1343회밖에 안 되고 실증제조 AI 데이터셋이라는 게 67.8%가 소위 말해서 미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6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제조AI 24 플랫폼을 재구축해요? 중기부가 이렇게 말장난하는 데예요? 기존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기존 것에다가 돈을 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제조AI를 넣으면, AI만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AI 대전환의 엄청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지금 얼마나 들였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수십억을 들였을 텐데, 수억 원을 들였을 텐데 그 플랫폼이 지금 전혀…… 1300개 이것은 플랫폼이 아니라니까 이런 데다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여기다가 어떻게 또 돈을 넣겠다고 버젓이 예산서에다가 두 번째 올라와요.

저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 답변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까 권향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제조 3.0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KAMP 시스템이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아직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않고 모인 데이터의 품질이 아무래도 좀 미흡하다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이번에 AX 전환과 뜻을 같이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절한 기능을 하는 플랫폼으로 변경하기 위한 ISP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강승규 위원 그게 말로……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랬잖아요,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있다. 그런데 AI 기반을 여기다 넣겠다’. 저 그 용어 이해 못하는 지식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DX 기반이든 AX 기반이든 뭔가 기반이고 전략, ISP 얘기를 하셨지요? 전략이라고 하려면 이런 부분 등이 지금의 어떤 플랫폼이든 그게 DX 기반의 어떤 시스템이든 돌아가는데 이게 어찌어찌 됐든 데이터 수집하는 기능이라든지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능이라든지 어떤 엔진이 부족하다든지 뭐 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이것을 AX 기반으로 해서 엔진을 그냥 1000대 올려놔야 스마트 팩토리도 AI 기반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환 시점에 여기에다 과감히 예산을 투입시키자 뭐 이런 전략이 있

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말로만 있어요, 말로만.

그리고 기존의 KAMP가 왜 안 돌아가는지 원인을 다 분석해서 KAMP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 국회에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AI 기반으로 하는 데 6억…… 조사도 안 하고 지금 AI 응용을 여기에다 그냥 접목을 한대, 말만 있어. 응용,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말만 붙이면 어플리케이션이지요. ISP 그런 전략 만들어 보겠다,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분석, 왜 스마트 공장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는지, 데이터 수집이 된 것도 이 기반에서 왜 가공이 안 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쓰고 싶어도, 다운로드를 안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 데이터가 쓰레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 데이터 만들어 놓고서는 또 여기다 어떻게 뭘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스마트 공장이 지금 1.0, 2.0 단계이기 때문에 AI는 생각지도 못한다, 로봇 기반이라든지 센서를 좀 고도화하든지 이런 정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스마트 공장 현황이. 그런데 거기다가 AI 플랫폼만 만들면 그게 데이터가 모집해져요, 현장에서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데이터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승규 위원 그게 없어요. 쓸 만한 데이터가 지금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더라도 그 스마트 팩토리가 정말 센서 몇 개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것 다 안다니까요. 제가 실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본 사람이에요, 제조업에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최근에는 기초 단계 넘어선 고도화 단계가 이미 30% 정도 구축이 됐고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이 KAMP를 고도화시켜서 또 스마트 제조를, 이렇게 제조업으로 6억 5000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절박성도 없고요. 이것 돈 쥐도 KAMP에다 6억 5000 또 버리는 거예요. 에이전트나 돈 먹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향엽 위원 차관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승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이 KAMP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미활용 상품 비율이 67.8%나 되고 그다음에 지금 다운로드 횟수도 이렇게 적다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도 서로가 공유할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 마이닝이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아무래도 표준화 쪽에 문제가 있다고……

○권향엽 위원 표준화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문제이고 표준화뿐만이 아니라 각 개별 데이터를 서로가 공유하지를 못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면 또 자기들의 노하우 그런 것들을 유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 어떻게 해서 같이 공통의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제조업 기반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렇게 전반적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모을 것이고 공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

획이 조금 부신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최초 단계에서는 부신했다고 봅니다.

○권향엽 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데이터를 이런 정도만 하지 않고 문제점이 뭐였다,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의 이야기가 명쾌하게 있어야 이런 지적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권향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지 않고 기업들이 데이터 공유를 꺼린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민간 TF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면서 연합 학습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 데이터를, 본인 데이터를 밖으로 내지 않고 본인의 공장에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고 최근에 많은 보완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KAMP 시스템을 변화시켜 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참 오늘 어렵네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게 머신 리더블에서 AI 리더블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 관련해서. AI 리더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엄청난 데이터의 절대량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키려 해도 그 데이터를 일종의 메타 데이터화하는 게 표준화라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셋의 절대량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으면 그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 AI 리더블에서 딥러닝이니 머신러닝이니 하는 것 자체가 그 구체적인 수치, 그 값이 아니라 그 수치의 유사성을 수학적으로 무슨 벡터화를 하고 비슷한 군집으로 묶고 그게 거기서 유사한지 안 한지를 찾고 이런 데이터를 막 학습하는 그 과정이 데이터 한두 개 뭐 100개, 200개로 아예 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작업에 어느 정도의 꽤 큰 볼륨의 절대량이 축적될 때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 줘야 그다음에 우리가 성과를 묻든 말든 이게 활용이 되든 말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성과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타당한지 잘 모르겠고 일단 이걸이 크니까 보류하기는 할 텐데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말로 그냥 100개, 140개, 150개 이 정도 데이터셋 구축했다고 성과를 묻는 것 자체가 사실 나중에 저희가 AI 시대로 전환한 이후에 돌아보면 얼마나 사실은 초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지 그런 과정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3번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조AI센터를 설치해서 AX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광주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가전 분야의 제조 AX 전환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 그리고 경북 지역의 제조AI센터 확대를 위해서 60억 원 증액. 그리고 부산 지역의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내역사업 지역 특화

AI 멘토 플랫폼 구축 및 확산 사업을 신설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3건의 제조AI센터 설치 증액안에 대해서는 60억 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신규 내역사업 지역 특화 AI 멘토 플랫폼 구축 및 확산 사업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사실 어저께도 저희가……

○강승규 위원 3개를 묶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세 항목을 묶어서 60억을……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지역을 제외하고 60억으로 수용하는 건가요?

○강승규 위원 그렇게 해야지.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저희가 어저께도 계속 특정 지역을……

○강승규 위원 지역은 제외해야지요, 공모사업 해야 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은 제외하고 3개의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지역을 제외하고 60억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억, 30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4번 기술혁신기반 조성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27억 6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었고 또 내역사업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서 6억 8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인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7억 79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내역사업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학, 출연연이 중소기업과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1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내역사업 융복합기술교류촉진 사업을 신설하여 9억 1700만 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5건의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5번 창업성장기술 개발 R&D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딤돌, TIPS 등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2020년에서 24년 종료 과제 중 정산금 미반납액이 총 104억 4000만 원, 282건에 달하고, 부정수급 과제가 다수 확인되는 한편 성과 활용률 제고방안이나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하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정산금 미수납액 부정 사용 줄어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6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 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된 R&D 신규과제 평가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증액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각각 26억 5300만 원 증액의견과 36억 22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건의 증액안 중에 관리비·인건비 증액안까지 포함된 36억 2200만 원 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36억 2200만 원 증액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7번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 예방기술개발 R&D입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기반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비제조 건설업 등을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8번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R&D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이 부분은 불수용입니다. 이유는 내년부터 당장 EU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타 심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예타 완료 후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필수 품목에 해당하는 최소 규모의 50억 원 예산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지금 이런 걸 이렇게 급격히 하는 게 쉬

위요? 이걸 예타 이후에 나중에, 내년에 해도 되지 않아요, 추경이나?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당장 내년부터 EU CBAM이 시행되게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도 NDC 그 중간 목표 상향 등도 있고 해서……

○강승규 위원 NDC 목표를 정부가 상향을 했다고 그래서 기업이 이걸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차관님이나 중소기업부에서 보면 지금 NDC 53%, 61%…… 지금 40%도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기업들 다 따라가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실제 제조업 현장이 얼마나, 요즘 주가 좀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서 경제가 괜찮아지나요? 차관님, 지금 제조업 현장 괜찮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제조업 현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강승규 위원 제가 충남 예산·홍성 지역구인데 예산에 산단이 있는데 산단에 지금 막 공장 들어오려고 계약하고 하던 곳들이 정말 요즘 다 떠나 가고요, 군청에서 기업들 제발 좀 입주하라고 다시 계약 계속 유지해 달라고 난리예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업을 이렇게 계속 옥죄는 법안 계속 만들어 내고, 탄소중립 누가 안 하고 싶대요? 그러면 기업은 탄소중립 하는 것 이런 것 정부가 목표만 정하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무너지면?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국내와는 관계없이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탄소 규제 때문에 수출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강승규 위원 EU로 수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기업들이 현장에서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갖다가 예산 넣고 목표 정하고 그래서 기업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 포기 의사를 밝힌다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저희 EU CBAM 대응 지원은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R&D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저는 그러면 이걸 부대의견으로 좀, 어떻게 좀 감액을 하더라도……

○소위원장 장철민 어떤 부대의견을……

○강승규 위원 이걸 부대의견으로, 이런 기업 현장의 어려움 등을……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저는 자료의 12개 과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철강 쪽이 7개, 5개 알루미늄 쪽인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8번 말이야, 8번.

○소위원장 장철민 8번 R&D 사업비?

○허성무 위원 8번, 현장의 기업들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반응이 느려서, 당장 내년부터 수출에 규제를 받는데 정부의 반응이 너무 늦어서 오히려 현장의 기업들이 답답해 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빠르게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 주세요.

○소위원장 장철민 차관님, 이 50억 사업이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에 집중적으로 R&D 지원하는 내용들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요즘 철강 R&D가 미국 관세……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50%……

○소위원장 장철민 도시바 등등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이 건은 저희가 좀 늦어지면 알루미늄·철강 업계에……

○강승규 위원 예타 결과는 언제 나오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타는 연말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예타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직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예타 해서 대상 사업이나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도출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뭘 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금번에 제안 드린 50억은 예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철강·알루미늄 분야 12개 과제에만 우선적으로 지금 반영한 거라고……

○강승규 위원 그러면 예타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타는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승규 위원 예타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철강·알루미늄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 50억은 빨리 지원하고 이게 앞으로 5년간 4000억짜리 탄소감축 R&D에 대한 예타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것 편성은 내후년에 예타 끝나고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예타 이후에 집행이 될 테니까 요 건은 오히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걸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야 되나요?

○소위원장 장철민 어차피 내후년도 예산이라 부대의견 편성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강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이 건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9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위험요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10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은 10번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입니다.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55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총 3건의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WTO 협정 위반 소지 및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사업을 일반 수출바우처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등을 통해 최소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바우처 운영에 있어서 사업 선정 및 정산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e 바우처와 전자정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증액안과 3건의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도 연 2회의 실태점검을 통해서 2년 이상 서비스 실적이 없는 공급기업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2년 이상 제공이 없으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 그러면 이 부대의견은 삭제할까요, 그냥 둘까요? 2년으로 하고 있는데 3년 이진 오히려 약간 어색해 보이는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대의견은 삭제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증액안과 부대의견 2건에 대해서 채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11번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입니다.

내역사업인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은 우리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수출컨소시엄은 미국 현지 타깃형 해외시장개척활동 및 수출 다변화 지원 확대를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건의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2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12번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입니다.

내역사업인 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타운조성 및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단순 사무공간 공사와 홈페이지 구축이 예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몽골과 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과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10억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삭감 불수용 입장입니다. 몽골 ODA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인프라 구축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몽골 현지의 창업 인프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타 사업과 비슷한 예산 비중으로 인프라 구축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중진공의 경우에는 MOU가 만료되었지만 창진원과 한국벤처투자의

경우는 이미 MOU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몽골과는 컴업 등 행사를 통해서 상호 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지금 이 프로젝트가 뭘 만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몽골 내에 창업 지원 인프라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교류회 개최라든지 전문가 파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강승규 위원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ODA 사업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ODA 사업입니다.

○강승규 위원 ODA 사업은 어떤 쪽에 주로 투자해요? 지금 우리가 해외 ODA 지원할 때 어떤 쪽에 주로 해요, ODA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수원국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 창업 생태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저희 창업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원하는 수원국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도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몽골에 짓겠다는 것이 창업허브라고 그러지만 오피스 짓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직접 짓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브 공간 구축할 수 있도록……

○강승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가 받은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게 있네요. 이것 오피스 건물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런데 오피스를 저희가 직접 짓는 것은 그쪽에서 제공하는 걸 리모델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래서 지금 ODA 사업을 통해서 몽골에 지원하는 이 사업이 스타트업들을 양성해서 사무공간을 제시하고 거기에 홈페이지 구축비 해 주고 그런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에 홈페이지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사무공간의 리모델링과 홈페이지 구축 등에 예산의 한 36.2%가 쓰인다고 나오네요.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홈페이지는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면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간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쪽 어떤 사업이 있길래 그러냐 했더니 지금 제가 감액 사유로 지적했던 것처럼 교류도 없다가 갑자기, 박영선 장관 때 추진하다가 사실상 대략 그 당시 체결했던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떤 진전 사업이 없다가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몽골과 협력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창업허브를 만들겠다 이래서 ODA 사업을 여기에다가 넣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볼 때도 전통적으로 저개발 국가 등에, 개발도상국 등에 ODA 제공할 때 생활 SOC 등 그런 시설 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해 주지 않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EDCF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ODA는 수원국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꼭 인프라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그런데 이게 창업허브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사무실 리모델링해 주고 거기에 홈페이지 구축해 주고 관리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몽골에 창업허브를 구축해 주는 게 맞아요? 나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저희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창업허브를 많이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네트워킹이 일어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명칭은 스타트업타운조성 및 엑셀러레이팅인데 실제 이게…… 하여튼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 준다, 이 사업의 본질이 그것 아니에요? 공유 오피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공유 오피스를 만든다는 것은 허브 공간 중에 일부 공유 오피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최고 중심 사업이 뭐예요? 창업허브를 만드는데 창업허브가 어떤 걸 만들어 주는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국내로 보면 텃스타운 같은 시스템을……

○강승규 위원 교육기관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보육 기능도 있고……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보육시키는 기관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엑셀러레이터도 같이 입주해서 스타트업들을 보육시키기도 하고 벤처캐피탈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집적해서 거기서 네트워킹……

○강승규 위원 벤처캐피탈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또 거기에다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요. 창업허브라는 것의 기능에 대해서……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쪽 사업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지금 허브니 엑셀러레이팅이니 말은 다 좋은데 실제 딱 보니까 공유 오피스가 있고 홈페이지 만들어 주고 교육한다는 것이고 관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몽골에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창업 뭔가를 할 수 있는 허브센터를 만드는 건지 느낌이 딱 안 와서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내년 예산 산출 근거 보시면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7억 5000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네트워킹 운영이 2억이고 홈페이지 구축은 사실은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은 편성……

○강승규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류회가 될 수도 있고 전문가 파견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냥 해 주시지요.

○강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차관님,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벤처 확산 차원에서 몽골에 가서 초기 투자도 좀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기업과 연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까지도 다 예정이 되어 있나

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기대효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생태계하고 동질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김종민 위원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우려가 이런 후속 작업이 없으면 사실 이게 ODA 치고는 막연한 OD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속 작업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시드 투자가 될 수 있는데 후속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ODA로 가지 왜 이렇게 막연한 ODA를 하나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그런데 몽골 스타트업 사절단이 현재 컴업이라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사에 계속 참가하고 있고요.

○김종민 위원 저는 몽골이나,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경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연대심리라든가 협력 의지가 되게 강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몽골의 에이스급 젊은이들을 발굴해서 연결시키는 데 스타트업 지원이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특히 아시아 지역의 똑똑한 젊은 인재들을 연결시키려면, 그중에 스타트업 하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우리랑 같이 네트워킹 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투자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화시키는 단계까지 계속 끌고 나갈 의지가 있는 건지, 전략이 있는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막연하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시혜적으로 잠깐 도와주는 거라면 잘 설득이 안 되는 거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저희가 해외인재 유치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인바운드 창업 유도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각종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몽골의 우수 스타트업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사업화를 시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엑셀러레이팅 사업에 대해서 아직 초기 단계니까 한번 밀어주시요.

○강승규 위원 제가 감액 철회라든지 여부는 다시 판단,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 한 두어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 몽골 측과 제대로 협의나 MOU도 하지 않고 그저 사업 하나 만들어야 되고 옛날에 했던 사업 중에서 몽골하고 협력하다가 지금 저기하니까 하나 끄집어내서 뭔가 급조한 느낌이 아주 다분히 들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몽골에 무슨 준비가 돼서 그들을 창업허브로 만들기 위해 교육시키고 엑셀러레이팅 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중기부 직원님들 가서 연수하고 몽골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업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제 우려는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내년에 현장 국감을 여기로 한번 가지요. 강승규 위원님의 우려를……

○소위원장 장철민 그것은 산자위를 계속하시는 분이나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김종민 위원 이것 MOU까지 해 놓고 약속을 해 놓은 거니까 일단 잘 봐 주시지요.

○강승규 위원 MOU도 비대면으로 체결했대요, 화상회의 세 번 하고. 그러니까 준비 없이 그냥 사업 만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장철민 하여튼 강승규 위원님이 전해 주셨으니까 사업관리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대표 스타트업 ODA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원안유지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13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는 생계형 적합업종 영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상생거래환경 조성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확대를 위해서 6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건의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없으시므로 2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그다음 14번 여성기업육성입니다.

내역사업인 여성창업지원은 여성기업 플러스 센터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6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펌테크산업 육성은 펌테크산업의 사회적 인식 향상과 산업기반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건의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건 없으시므로 2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15번 장애인기업 육성입니다.

내내역사업인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입니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17억 8000만 원 증액 의견과 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시스템 구축비 8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내역사업인 수출역량 강화사업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 물류비 추가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첫 번째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현장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17억 8000만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의 증액안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사안은 17억 8000만 원으로 뒤에 두 사안은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16번 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K-뷰티 클러스터는 복지부와 문체부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또 사

업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면에 팝업스토어·체험관 운영 확대하기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대한민국동행축제 사업은 내년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축제 시행을 위해서 1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첫 번째 30억 감액안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복지부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뷰티체험관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저희는 5극 3특에 있는 글로벌 상권들, 비수도권 유망지역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민관합동추진단을 가동해서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2건의 증액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보니까 복지부가 지금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있지요. 또 문체부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하고 있고. 그렇지요? 비슷한 상황인데 사업 중복이고 또 재정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체험관·팝업스토어 운영계획을 보니까 기업 수하고 대학, 뭐 이 예산만 있을 뿐이고 운영 시기, 장소, 기업 선정 기준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중기부가 구체적인 사업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면 저희들 이해하기도 쉽고 예산편성 하는 데 이렇게 될 건데 너무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예산을 좀 짜 뒀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은 서울의 명동하고 홍대 쪽에 뷰티체험관을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문체부의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은 일종의 할인행사 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K-뷰티 클러스터는 말씀하신 대로 팝업스토어라든지 바이어 상담회 등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면이 많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민 위원 글로벌 지역이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특정 지역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김종민 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글로벌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볼 예정입니다.

○김종민 위원 대략 그 리스트를 정리해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글로벌’ 그러면 홍대도 글로벌이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수도권은 저희가 생각, 아까 말씀……

○김종민 위원 명동·홍대·성수동 다 글로벌인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쪽은 이미 뭐……

○김종민 위원 거기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 하려면 지역의 산업과 체험·관광이 연결돼 있는 고리가 이런 지역은 소비 중심의 명동, 그런 리전(region)·사이트하고 다르다 이런 걸 설득을 해 주셔야 얘기가 되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미리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동만 위원 이게 예산이 되면 내년 1분기 체험관 운영 가능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위원님, 이게 30억 원이고요.

○소위원장 장철민 국장님, 직위와 성명……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입니다.

내년 예산이 30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한 15억씩 해서 2개소 정도를 전국 광역단체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분기까지는 선정 절차나 평가 절차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1분기는 좀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고 여름 정도……

○정동만 위원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그래서 저희가 평가와 준비시간이 좀 필요…… 2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K-뷰티 클러스터, 여기서 ‘클러스터’가 뭐예요? 왜 클러스터라는 명칭으로 지었어요? K-뷰티에 무슨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부, 문체부, 저희, 각 부처별로 지원 정책이 분산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간적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모아 보자는 취지에서 기재부와 같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홍대나 명동 등에 만든다는 스토어 그다음에 문체부의 할인행사 등에 하는 이벤트 이런 것 등과 함께 중기부에서는 뷰티 슱을 전국에 공모를 통해서 2개소, 그게 대구인지 광주인지 충남 예산인지 모르지만 공모를 해서 뷰티 팝업 슱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팝업스토어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팝업스토어 매장 하나 만들고 또 뭘 만들어요? 왜 클러스터예요, 그게?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뷰티체험관이 있고요.

○강승규 위원 체험관? 체험관이라는 게 뭐, 스토어에서 발라 보면 되는 걸……

○권향엽 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성수 가 보셨어요? 아모레성수 가 보면 저희들이 립스틱 일반 가게에서 그냥 사서 쓸 수도 있지만 가서 디자인해 가지고 저에게 가장 맞는 컬러로 바로 계측을 해서 립스틱을 만들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체험관입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저는 이 클러스터라는 이름이, 제가 이해하는 클러스터 개념이 뭔지 모르겠는데…… 체험관, 팝업 매장, 또?

○김종민 위원 관광.

○강승규 위원 아이, 이것 정말, 중기부 담당 공무원님들도 머리 좀 아프시겠지만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K-뷰티 중기부 차원에서 뭔가 붐 업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너무, 팝업 매장을 공모해 가지고 어딘가 관광객 많이 오는 곳에, 충남 예산 지역에 하나 만든다, 이게 클러스터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밖에 없나요? 난 이 사업 잘 모르겠어

요, 뭘 얘기를 하는지. 예산에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K-뷰티에 대해서 관광객이든 해외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림을 좀 거창하게 그려 가지고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뭘 한다든지, 여기서 뭘 가 체험해서 딱 나오면 거기에 맞는 상품셋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K-뷰티의 제조 현장 그다음에 K-뷰티의 실제 자기 맞춤형 습 그리고 그것을 딜리버리, 유통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바운드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K-뷰티 습을 어떻게 더 활용하게 하고 아웃바운드는 이벤트 축제, 할인 이벤트 어떻게 할지, 뭘 좀 중기부가 하려면 대충 그런 것 그려 내야지 팝업 매장 만든다고 클러스터 이름 붙여 놓고……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클러스터가 아니라 우리 K-뷰티가 워낙 물 들어 와 있어서 K-뷰티 클러스터 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 들어 왔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같이 노 좀 저을 거냐 이렇게 하면서 사업제안 내용들이 모여져 있는 사업이 이 내용인 거고, 이게 클러스터라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범부처 클러스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소위원장 장철민 범부처 뷰티 클러스터 추진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거기에서 사업화를 한 예산이 이런 건 겁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여기 체험·문화·관광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등이 그냥 내가 볼 때 습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것 같고 이것을 우리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쪽은 어떻게 해야 될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글로컬 상권 말씀을 드리는 게 문화하고 관광을 결합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글로컬 상권하고……

○소위원장 장철민 물 들어 왔는데 노 몇 개 없어 주시지요.

○오세희 위원 발언 좀 할게요.

이게 사실은 요즘 굉장히 핫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이제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건 K-뷰티 쪽이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위원님.

○오세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강승규 위원님 말씀처럼 각자의 어떤 정체성,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쓱 둘러보고 팝업 스토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케팅이 구체화가 돼 가지고 고객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각자 이제 흩어져 가지고 문체부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도 하고 굉장히 산만하게 혼란스럽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K-뷰티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중기부도 따라서 같이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역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는 판매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판매 위주, 문체부에서는 어떤 걸 잘하나, 외국의 관광객들 모집 이런 것들이 좀 가 켜야 되는데 사실 동행축제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는 한 지가 오래 돼서 이것을 보여 주기 식이 아니라 정리하면서 더 알차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은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하는 내용도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김종민 위원** 저도 한마디 좀 드릴게요.

지금 강승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 중에 클러스터가 되려면, 중기부가 주도하는 클러스터면 범부처 사업이나 아니면 문화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이렇게 갈 클러스터가 아니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클러스터의 내용이 확대되어 나가는 모양이 있어야 돼요. 중소기업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문화부가 여기다가 클러스터라고 이름 붙여 놓으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중심이 돼서 기업이 참여해서 이 K-뷰티 클러스터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갖춰진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중기부 사업으로 설득력이 있는 거고 차별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K-뷰티 클러스터 사업을 해 나가려면, 여기 보면 체험·문화·관광 이런 식의 아웃풋 위주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소비자한테 뭐가 다가가느냐가 되어 있는데 이 주제, 기업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중심이 돼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개념이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K-뷰티 선도 중소기업이 에너지를 되게 걸 집시켜서 글로벌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모양새가 좀 나와야 중기부 사업으로서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이게 사실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저희, 문체, 복지, 식약처 등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관합동추진단에는 말씀하신 K-뷰티 기업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 기업들이 최대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기업 내의 체험관 운영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기업 제품들이 당연히……

○**김동아 위원** 기업 내 체험관 운영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체험관에 기업분들이 본인 제품들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지금 현재 체험관이 이렇게 있지만 자꾸 헛갈려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모레성수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 가서 한번 경험하시면 이게 어떻게 클러스터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수출 상담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기업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보입니다.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중소기업부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방금 지적을 했다시피 체험관을 뒤서 한 번 발라 보는,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서 발라 보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와서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을 하고 이거 좋다는 걸 바로 체험하고 이것을 어느 회사와 어떻게 수출 또는 판매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부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권향엽 위원**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원하는 상황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복지부가 하

는 것, 자연스럽게 가면 그 옆에 관광이 이루어지지요. 거기 가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약을 하고 그 시간대에 방문해서 그 시간대에 기다리면서 옆에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일대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권향엽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정말 김종민 위원님과 권향엽 위원님의 아주 스마트한 지적에 제가 불여서 저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마지막 당부를 부탁드리면 적어도 K-뷰티 클러스터 하면 기업이 마케팅 현장에서 많은 관광객들,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형 속에서 중소기업이 그런 체험 현장을 활용해서 자기 제품을 도전적으로 내본다든지 스타트업이, 또 K-뷰티에 참여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마케팅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클러스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기대했는데 내용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페스티벌에서 체험하는 거, 팝업 매장 임시 매장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거 이런 정도 이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민 위원님과 권향엽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K-뷰티 산업에 우리가 마케팅 공간을 더 얻고 또 기회를 얻고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어떤 한 장소에 또 하나 체험관을 만든 게 아니라 이벤트 형태로 관광객이 많이…… 경주에서 한번, 한 세 달 경주 관광객이 가장 많을 때 세 달을 거기서 운영한다든지—홍대는 또 있으니까—어딘가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에 도전의 기회를 그들에게 많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을 해야 클러스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차별화도 되는 것이고. 다시 좀 구성하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딱 그런 취지로 중기부가 이 사업 관리를 할 것으로 저는……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다시 리뉴얼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요 그런 걸 나중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하지요.

○권향엽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래서 그러면 원안 유지로 할까요, 30억 증액으로 할까요?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증액 안 돼. 이게 그림도 안 나왔는데 무슨 증액이야……

○소위원장 장철민 지방에 두 군데만 하면 싸움 날 텐데.

○강승규 위원 지방……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증액을 해요?

○권향엽 위원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 인플라가 많은 그곳에 그러니까 비수도권에다가 K-뷰티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거 증액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싸움 납니다, 진짜.

○소위원장 장철민 오히려 두 군데 싸움 날 것 같은데요.

○김종민 위원 2개로 해야 돼, 2개로. 이왕 하려면 2개로 하고 예산은 꼭 포함시키는 걸로 하고……

○강승규 위원 우리는 감액의견을 냈는데 감액을 철회하면 증액을 철회해서 이 사업이 뭔지를 좀 정체성을 봐야지, 거기다 증액까지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를 우리가 그래도…… 이게 보이지도 않는 사업이잖아요.

○김종민 위원 내포나 아니면 보령쯤에다가 하나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소위원장 장철민 그랬다가 그다음에 사업이 없어집니다, 잘못하면.

○정동만 위원 일단 증액하는 건 과하고 30억 그냥……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원안유지로……

○김동아 위원 아니요. 증액을 제가 의견을 낸 건데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요. 이게……

○강승규 위원 그러면 우리도 감액 철회 안 해요.

○김동아 위원 저도 증액 철회 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저희가 예결소위 가면 어차피 증액은 저희 상임위보다 예결위의 권한이 훨씬 더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유지로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이거 보류해 가지고 다시 가 봐야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원안유지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원안유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 건은 복지부가……

○김동아 위원 해 주시면 안 돼요?

○강승규 위원 차관이 두 곳에 한다 그랬어, 두 곳이라 그랬지요?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해야 두 곳이라고.

○권향엽 위원 증액을 해야 두 곳 된다고요.

○강승규 위원 30억 가지고 두 곳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두 곳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것 봐.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네 곳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네 곳 하면 영·호남, 충청, 강원 네 곳 이렇게 딱 나눠 가면 되잖아요.

○김종민 위원 그것도 말이 되네. 수도권은 빼고……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지금 동일 건 중에 123억 증액안 동행축제에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을 별로 안 주셨는데 이 건은 그냥 증액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K-뷰티 클러스터와 관련돼서는 원안유지, 대한민국동행축제는 123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17번,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소기업옴부즈만 운영은 옴부즈만 업무 대부분이 중간 전달자 역할에 그

치고 있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옴부즈만 통합 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4억 1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처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중간 전달자의 역할만 수행하면서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부 소관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먼저 감액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옴부즈만 운영 효율화를 위해 2억 원의 운영비를 감액한 바 있어서 추가적으로 감액할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서는 사실 부처별 옴부즈만 운영 같은 경우에는 부처별로 또 목적·성격·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국조실에 통합하는 방안을 저희가 주도해서 협의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대안 문구를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어떻게 대안을 만들면 될까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간 전달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규제 개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까지 이 부분을 빼는 형태로 저희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옴부즈만이 4년 동안 총 예산이 16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과제당 320만 원이 투입이 된 건데 이게 사실은 옴부즈만이 지금 보면 민간단체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그런 입법이라든지 마무리, 이런 부처 간에 그런 것들이 시행령 개정이 부족하면 성과 미비로 나타나고 국회에서도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 중에 지원단 운영 성과 홍보 휴일수당이 7억 4000이거든요. 한마디로 홍보비지요.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손을 대지 않고 운영에 관한 건데 이게 연구용역비까지 4억 5000만 원을 들여야 되나, 어차피 딱 데 업체에서 다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체한테 개선하려면 ‘너네 연구용역해 와’ 이런 거고 중기부가 또 하고 그리고 제가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이걸 감액한다고 그랬더니 건너 건너 가지고 성과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 그런 언론사의 홍보비가 깎이면 기사가 날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옴부즈만이 무슨 홍보예요? 그리고 중소기업부에서도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보면 매년 해서 160억 원을 들여서 과연 이게 4년 동안 하는데 41억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왜 필요한가. 또 그리고 해외, 국내 이게 출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만 해 가지고 성과가 나냐 이겁니다. 각종 단

제, 국회 이런 데서 토달해서 이렇게 성과가 났다고 하면 여기서 해 가지고 여기가 권한이 그렇게 주어진 것도 아닌데, 전달자거든요.

이게 41억 원을 들여서…… 기능을 좀 축소해야 된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너무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도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연구용역비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억 1000만 원.

○강승규 위원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가 언제부터 운영돼 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009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2009년이요? 그러면 매년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올해 지금 41억이지요. 그러면 지난해는 얼마였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난해에도 39억 정도……

○강승규 위원 39억. 그 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규제영향평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옴부즈만 운영은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30억? 아니아니, 옴부즈만 제도를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41억 9300만 원 이거 요청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내년 예산은 41억 800만 원입니다.

○강승규 위원 41억 800만 원. 그러니까 25년보다 조금 줄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원 정도 운영비 감축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운영비 감축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전에는 41억 9300만 원입니다.

○강승규 위원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얼마 쓰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오세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연구용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낭비성 요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오세희 위원님이 더 따졌을 텐데, 혹시 지금 전 정부에서 옴부즈만 단장이 임명됐는데 나가라고 하는 압박용으로 예산 삭감이 비쳐질 수 있지 않느냐. 이 제도가 오랫동안 2009년부터 운영됐다면 지금 벌써 20년 넘게 운영돼 왔는데 이 제도가 불필요해서 없애지 않는 한 예산 삭감을 지금 2억 삭감했다는데 4억을 또 삭감하면 혹시 오세희 위원님, 전 정부 단장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세희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즉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고요. 옴부즈만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중간 역할이고 이게 어떤 조사권이나 시정권이 없는데 중기부에 치고는 너무 과다해서 한 거고, 특히 이게 잘못된 게 광고비를 인터넷 신문에 주면서 이걸 깎으면 기사가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전직 의원이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 진짜 용납 못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왜 그게 광고를 내야

돼요?.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고…… 보니까 옴부즈만이 했던 걸 보니까 집중적인 건의 과제 분석·검토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서 규제 부분을 또 해결도 했고 보니까 지난해의 경우 5000여 건 발굴해서 처리했던 성과도 지금 있습니다. 있으니까 기 한 2억 정도 또 삭감이 됐고 하니까 운영비까지 이걸 삭감하기에는 저희들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차관님, 오세희 위원님 얘기하시는……

○**오세희 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라는 게 임금 이게 아니라 연구용역비가 4억 5000만 원이고 성과 홍보비, 언론에 광고비가 있고 7억 4000만 원 지원단 운영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부풀려 갖고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5000건이라 하지만 국회에서 뒷받침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실적으로 하면 모호한 거예요, 여기가. 조사권이 있어요? 시정권이 있습니까? 그냥 전달하고 거기서 어떤 현장의 어려운 걸 들어 주고 나머지는 국회가 모든 간담회도 하고 입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지금 4년 동안 162억인데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연구용역비에서 좀 줄이고 광고비를 왜 여기에 들여야 되냐 이거예요. 광고비, 성과 홍보비, 7억 4000만 원으로 지원단 운영하고, 이것을 좀 더 줄이고 싶은데 제가 약 10% 감액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 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사이트에다 뭐, 협박도 아니고, 위원은 각자 판단하에…… 제가 너무 알기 때문에, 여기가 허울만 좋은 거지 처리하는 것 어차피 다 국회 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마무리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광고비까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차관님, 광고비를 매개로 무슨 기사를 내겠다는 등 이런 식의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방금 오세희 위원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좀 돼 있으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옴부즈만지원단 직원 중에 기자 출신이 본인 인맥을 이용해서 좀 하소연을 하신 것 같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어찌 됐든 간에 저도 사실 지금 처음 듣기는 했지만 옴부즈만 내에서 어떤 종류의 직위와 어떤 종류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어떤 동기로 그런 얘기를 하시거나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옴부즈만이라는 이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굉장히 사적인 월권적인 행위나 권한남용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광고비 삭감을 세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저희가 하고, 어차피 심사할 수 있는 시한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그사이에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보류했다가 이후에 광고비를 삭감할지 아니면 옴부즈만 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지 그것은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을 저희가 하고 위원님들이 공유를 조금 하시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18번 중소기업조사 연구평가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에서 DB시스템의 화재 예방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해 9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은 19번 창업 저변 확대입니다.

다수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내역사업인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은 지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 스타트업 중에 해외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하여 1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내역사업인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 주관기관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추후 컴업 2025 행사 운영대행 위탁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자진 신고 및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이해충돌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규 내역사업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진주)을 신설해서 실시설계비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내역사업으로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을 신설하여 구미시 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 10억 원 증액 의견, 신림벤처창업센터 조성 5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신규 내역사업으로 광주 동구 원도심 AI헬스케어 실증 Complex 조성을 위한 2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먼저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16억 삭감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CES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과도하다는 비판 등을 감안해서 이미 정부는 올해부터 CES 지원 규모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CES에 대한 스타트업의 참여 수요가 많다는 점과 CES 지원은 이 예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 같은 성과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라든지 현지 매칭, 네트워킹,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수용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부대의견 수정으로 다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안 주신 것 중에 ‘창업진흥원은 내역사업인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 주관기관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추후 컴업 2025 행사 운영대행 위탁용역을 수주하는 사례’라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주관기관 선정 심사위원과 위탁용역사 간에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표현으로 좀 완화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또 ‘자진 신고 및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이해충돌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관리를 면밀히 하여야 한다’ 정도로 톤 다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 진주에 신설하는 부분은 실시설계비 20억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은 했지만 진주시에 있는 관내 지역 5개소만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진주라는 건립 지역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지역 적정성 재검토라든지 건축 예산 규모, 선정방식, 운영전략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창업인프라 구축 시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진주시에 내년도에 지방비 매칭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지원에서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예산 24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벤처창업센터 조성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해당 지자체인 관악구에서 내년도 매칭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자체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동구 원도심 AI헬스케어 실증 Complex 조성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정부에서 부대의견 표현을 좀 완화하라는 것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 감액 예산에서, 일단 CES, K-스타트업 통합관 운영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라는 목표를 최근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통합관 운영은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해외 투자 유치로 연결되는 성과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통합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 툴이요? 아니면 그래도 그 통합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실질적 목표가…… 해야 되는데 운영을 잘 못한다든지 CES 성격이 그렇다든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지금 부진한 게 원인이 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보통 전시회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는 상담이라든지 실제 계약이나 MOU 건수를 KPI로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스타트업 행사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중요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원래는 전시회 성격상 상담이라든지 계약·MOU 건수 등을 성과로 중점 관리해 왔습니다.

○강승규 위원 상담이나 MOU 건수는 여전히 많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개 전시회에서 상담이 1300건, 계약·MOU도 한 60여 건 체결이 됐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실제 투자 유치는 왜 이렇게 부진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투자 결정은 좀 더 많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사실 저도 한번 가 봤지만 요즘 봄처럼 너도 나도 그냥 가는 곳으로 그런 행사로 비치지 않나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많이 하는데 정부가 그냥 행사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의례적으로 통합관 운영하고 의례적으로 전시회 하고 뭐 한다고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돈을 내년에 16억을 들이겠다는 건데, 실제 이런 기능은 이미 소멸

됐다, 이게 투자 유치의 창구가 되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16억 중에 CES 지원 예산은 작년에 8.1억이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올해는 5.4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초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혼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관을 통해 나가서 진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업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스타트업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1년에 몇 건 정도지요? 늘어나고 있나요? 어때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이 예산을 통해서 총 4개의 전시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4개의 전시회에 몇 개의 업체들이 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CES에는 한 150개 정도 업체가 나가고요.

○강승규 위원 매년 업체 수는 늘어났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시는 것처럼 CES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혁신상도 많이 받고 하면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액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감액안은 철회된, 원안 유지로 하고요. 부대의견은 중기부에서 제안하신 문구로 수정하고.

신규 내역사업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은 아까 5억으로 조정하신다고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평벤처창업센터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 이견이 있었는데 중기부는 사실 지역 특정에 대해서 별로 딱히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올려도 되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안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역혁신창업활성화 사업 자체가 올해는 예산이 없지만 과거에도 지역을 특정해서 많이 편성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것은 약간 공무 성격 사업이 아니라 센터 구축이라 그게 가능했었나 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매칭 가능성만 확인……

○소위원장 장철민 어차피 지자체가 기획을 해 가지고 매칭해야 성사가 되는 사업이라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이 건들에 대해서는 구미와 신림은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구미, 광주 동구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구미는 반영하고 신림만 불수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밑에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도 광주 동구 이런 내용들이 있길래……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광주 동구도 수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은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전문위원 성소미 20번 창업사업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다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내내역사업인 특화창업패키지 사업은 현재 조성 중인 홍대 글로벌 창업 허브 건물에 고액 월세가 지출되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194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화창업패키지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공간 마련 절차 이외에 운영기관 선정, 글로벌 VC 등과의 MOU, 입주기업의 입차조건 및 국고반납 계획 마련 등 사전 준비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 보이는바 조속히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단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의 창업 지원 외에 글로벌 VC 유치 등 시장의 투자 여건 조성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규 내내역사업 특화창업패키지에 글로벌 창업 허브 프로그램 운영비 내역으로 3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창업중심대학에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 예산 3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창업중심대학 내역사업에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울산과학기술원 지원 용도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창업패키지에 K-FOOD 창업 특화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서 68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1건의 부대의견과 4건의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화창업패키지 194억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창업 허브의 입지 선정 과정이라든지 예산편성 절차 등에 관해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 그 결과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글로벌 창업 허브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글로벌 대기업이라든지 해외 VC 등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글로벌 역량이 있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지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글로벌 창업 허브 이 사업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맞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권향엽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정하셔야 될 겁니다.

글로벌 창업 허브 사업 자체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위원님 맞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봤던 것이고 원래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사업을 지적을 했었던 것은 전 정부의 예산 비리라고 명백히 보여졌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예산 194억을 전면 삭감하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계속 고액의 월세를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 표지갈이를 계속해 왔었던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예산 심사권을 농락하고 기만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중기부가 국회의원들을 바보 만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상황을 보자면 이 사업이 고액 월세를 감수할 만큼의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그 설명을 아직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본 위원에게도 말하고 있지 못했고 지난번에 차관님께서 저에게 왔을 때 했었던 이야기, 홍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예산안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유추하건대 홍대가 글로벌 상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주 장관이 홍대를 글로벌 창업 허브로 지정했다 이 말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글로벌 창업 허브 여기에 들어오는 벤처기업들이 임대료 내야 되는 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내가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된다고 그때도 거듭거듭 말씀드렸고 했지만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이 혼쾌하지 않았고 그것을 갖다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것이 굉장히 꿈수로 라벨갈이를 진행해 왔었다. 이것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라고 했었고 차관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리고 내년 초에 개소 예정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권향엽 위원 입주사 선정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잠깐……

○권향엽 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 하자는 이야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까 글로벌 대기업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본인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거기를 사옥으로 쓴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래서 그 대기업들 참여를 지원한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제가 전달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차관님, 꼭 그 건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이 사업 취지보다 꼭 해당 건물이어야 되느냐, 그 해당 건물에 그 정도의 고액 월세를 물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과 대출심사 과정에서 의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을 국정감사 등등에서 계속 제기를 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감사와 별개로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다른 입지를 알아본다든지 이 사업을 진짜로 진행할 의지가 있으시면 내용적으로도 조금 보강을 하고, 서울 땅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거기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할 수 있어서 대안 입지에 대한 탐색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논의가 됐을 텐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 수도권에 100여 개 이상 후보지를 탐색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KDI 용역을 통해서 3개 후보 지역을 뽑았고 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종 선정 과정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셔서 최종 선정 후보지에 대한 내부감사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흥대를 택하게 된 것은 건물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빌릴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의 접근성이라든지 인근 대학과의 관계 등을 감안했을 때 강남이나 성수보다는 흥대 인근이 공항에서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주변의 많은 대학들이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태평했던 여러 기관들에서 흥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했던 점 등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권향엽 위원님이 국감 때도 이것 지적을 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관계 몇 가지는 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월세가 흥대 주변의 사이트에서 다른 건물에 비교해서 좀 높은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조금 높습니다. 다만 전체 건물……

○김종민 위원 어느 정도 높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한 22만 원, 24만 원이니까요.

○김종민 위원 몇 % 정도 높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평당 한 2만 정도, 평당 한 10%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요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그 정도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요지도 있고 저희가 전체 건물을 임대하다 보니까 계약조건이 조금 달랐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그다음에 지금 홍대를 하지 않고 다른 데를 했을 때의 그 임대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홍대가 되게 높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홍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KDI에서 굳이 월세가 좀 많이 나가더라도 홍대에서 하는 게 글로벌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저희가 성수라든지 강남 창엽가 거리 등 검토를 해 봤지만 성수는 사실은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문화관광 거점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김종민 위원 아니, 지금 가산도 있고 또 테헤란밸리도 있고 판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새로 뭘 만든다기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금 프랑스의 스테이션F 같은 것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표적인 대표선수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굳이 새로운 데 가서 개척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한 판단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계약을 한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이미 계약은 진행이 됐습니다.

○김종민 위원 만약에 이번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게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계약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김종민 위원 그 매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매몰비용이 1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예산이 194억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내년 예산 194억입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보기에 저는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권향업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은, 국감 때 제기한 내용 포함해서 그것은 따로 빨리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만 몇 개 좀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이 스테이션F라고 하는 게 프랑스는 이것을 민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민간에서 시작하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스타트업, 심지어 글

로벨 스타트업이 다 들어가고 우리나라 네이버도 거기 가 있어요. 사무실 냈더라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들이 거기 가야 중소기업, 스타트업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규모가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투자해 봐야 이게 한계효용이 별로 높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건물 하나 통째로 빌리는 게 어느 정도 인지 감이 안 잡히기는 하는데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굳이 이것을 문화중심의 소비 거리인 홍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스테이션F는 기차역 갖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좀 혁신적이고 뭔가 도전적이에요. 우리나라 홍대라는 게 그야말로 소비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는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모이는 그런 젊음의 거리하고 소비적 젊음의 거리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런 점에서 저는 홍대를 선택한 게 내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하여간 매물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한국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홍대에 들어온다니까 그것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대도 하고. 그런데 저는 하여간 이게 혁신적인 이런 프로젝트 치고는 뭔가 트렌디하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비리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되, 이 문제는 국감 때 얘기했으면 한 열흘, 보름 안에 빨리 확인을 해서 예산 때는 뭔가 입장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매물비용 100억 감수하고 삭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 안 하려면 빨리 정리를 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은 하되 살려 주십시오’, 뭐 가닥을 잡아서 갖고 와야지 ‘계속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보기에 그 조사가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요.

○권향엽 위원 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차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요, 자체감사하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매물비용이 있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없고 그냥 감사도 형식적으로 거칠 것 같습니다.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동행축제에서 로봇개 홍보해줬던 것과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 라벨걸이를 통해 가지고 이 건물 소유주에게 어떤 보증을 해 줬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물 소유주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작년 12월 4일 날 해당 건물을 담보로 전국 33개 새마을금고 대주단과 1320억 원의 부동산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출심사 내용 중에 ‘정부사업을 위해서 최소한 5년 동안, 장기간 동안 건물을 전부 임차함으로 수익이 안정적이다’라고 중기부가 이 건물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활용되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중이고요.

이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글로벌 창업 허브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안일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 저는 그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동산담보대출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었고 건물 완공 이후에 조건을

달리하는 일종의 대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5년 계약을 해 줌으로써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유리하게 받았을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 다만 없던 대출을 받았던 게 아니라 기존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이 완공된 이후에,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로 변화하면서……

○권향엽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요 중기부가 5년 동안 여기에서 장기임대하기로 했다고 하는 이것이 조건이 돼서 대주단이 1320억 원이라는 대출을 약정을 해 줬다고요. 중기부가 보증을 서 준 것과 다른없다고요.

자, 이것 자체는 글로벌 창업 허브 사업과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제가 개연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이고, 글로벌 창업 허브 사업 자체를 이 건물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입장이 확고한 만큼 저를 설득시켜주세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다.

○김종민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준공 후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액수하고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금리 차이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금액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확인을……

○김종민 위원 금액은 비슷하고, 금리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금리는 아마 저희가 5년 계약을 체결하고 했으니까 완공이 되면 또 담보 가치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김종민 위원 그러면 대출 자체는 이어져 온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금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기부 계약 건으로 인해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종민 위원 그게 준공 후 대출의 통상적인 금리 수준보다 훨씬 더 이익을 봤다 그러면 혹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황이라.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매몰비용 100억을 감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권향엽 위원 차라리 이렇게 매 달 많은 비용이 나갈 것 같으면 좀 더 유사한 데 건물을 하나 사도 되는 겁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홍대에 대한 판단을,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권향엽 위원 반드시 홍대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홍대에 대한 메리트가, 오직 이곳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김종민 위원 저는 홍대 찬성 안 해.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은 매몰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 건물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조사를 하시고 있으시다는데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권향엽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조금 더 보고를 하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대의견과 이 밑에 다른 증액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화창업패키지 내내역사업 관련해서 이 감액안은 보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일단 증액과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저희 휴식과 환기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1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민관협력 창업자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에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22번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수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해서 단일창구 구축 지원을 위한 76억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52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AX창업허브 지원을 위해서 30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안에 편성된 제조창업 공유공장 2개소 외에 추가 1개소 선정(경산)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그리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AI·로봇 스타트업 제품 제작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미시 제조창업 인큐베이팅센터 설계비에 5억 원 증액 그리고 경기 시흥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스타트업 파크 사업에 경북 북부경제권 재도약 창업밸리 조성에 5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주 지역에 6억 원 증액 그리고 광양시 5억 원 증액 그리고 전남 스타트업 파크 신규 구축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지역창업특화지원에 중장년 pre-인큐베이팅, 특화역량보유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 15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내역사업 바이오메디컬 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 신설해서 이 지원을 위한 양산시 바이오메디컬 AI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먼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2건의 신규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전담인력 인건비 등 제반사항도 기업의 편

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76억 5000만 원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AX창업허브 30억 6000만 원 증액안 수용 드리고 그다음에 제조창업 활성화 경산 쪽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사천에 대한 제조창업 활성화 5억 원 유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AI……

○소위원장 장철민 차관님, 일괄적인 수용 의견이시면 그냥 일괄적인 수용 의견 밝혀 주시고 수정이 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만 말씀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는 위에 2건은 수용드리고 내역사업 스타트업 파크 관련해서 경북 북부경 제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 수용이 어렵 다는 말씀 드리고요. 반대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제주와 광양은 이미 수요조사에 참여 하였고 그리고 전남 장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 수요조사에 사전에 참여하지 않아서 전혀 검토가 돼 있지 않은 사항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경북 예천과 장성은 수용이 어렵고 나머 지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첫 사안은 76억 5000만 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안 중 스타트업 파크 경북 그리고 전남 제외한 나머지 증액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죄송합니다. 뒤 페이지도 2건의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예, 일괄 수용으로 아까 의견 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수용이 안 된다는 게 뭐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경북 예천과 전남 장성입니다.

○강승규 위원 몇 페이지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경북 예천과 2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전남 장성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23번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역사업인 벤처기업 일자리지원에 10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역사업인 글로벌 판로 확대 및 투자 유치 지원에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건의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24번 벤처캐피탈 선진화입니다.

내역사업 기업승계 M&A 지원에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벤처스튜디오 활성화 신설을 해서 예산 1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건의 증액안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6페이지, 25번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성과공유 확산에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채직자 내일채움공제 시즌2 제도를 조속히 재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은 이게 저희가 예산 당국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재추진한다’ 보다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로 대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부대의견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승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방금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부대의견 수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고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6번과 27번입니다.

기관운영경비 총액과 일반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 신설과 인력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경비 1억 4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에는 기본경비 1억 83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2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28번 중소벤처행정정보화입니다.

내역사업인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11억 16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내역사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1억 31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증액안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9번과 30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관 신설로 관사 신규 확보를 위해 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그리고 19명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추가 임차를 위해서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9페이지, 31번입니다.

신규 세부사업 중소기업 AI 기반 해킹 자동대응 서비스 지원을 신설하는 예산으로 810억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이 증액안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 규모상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부담 50%기 때문에 기업 수요가 충분할지도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동일한 목적의 기업 부담금이 없는 기술지킴서비스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강승규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32번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2026 이노베이트 코리아입니다.

신규 세부사업으로 K-TECH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신설하여 예산을 5억 93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33번 신규 세부사업으로 거브테크 스타트업 특구 조성 육성을 위해서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지역자율계정입니다.

1번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상권 쇠퇴 추세를 감안해서 6억 35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동 증액안은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 권한이 광역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될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만큼을 지자체가 다른 사업에서 감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

○소위원장 장철민 그 정도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율계정 같은 경우에는 편성

권한 자체가 지자체에 있습니다. 이 건은 삭제하고.

향후에 의원실에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계정에서 해 보는 걸로 시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세출 지역지원계정입니다.

1번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AI 기반 글로벌 수출 디지털전시관 구축을 위해서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미 비슷한 온라인 수출통합플랫폼이 복수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강원 등 특정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보다는 전국 단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승규 위원 AI 기반 글로벌 수출 디지털전시관……

○소위원장 장철민 디지털전시관이면 지역이랑 조금 모순되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냥 부처에서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삭제할까요?

○강승규 위원 나는 대답한 바 없으니까……

○김동아 위원 기록에 남겨요.

○소위원장 장철민 정동만 위원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성무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

○오세희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2번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입니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에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에 충남 그린암모니아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위해서 4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공모 방식을 택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한 증액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이 내역사업명이 다르니까 어쨌든 증액 규모는 유지하고 지역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지역만 빼 주시면……

○소위원장 장철민 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그다음 3번,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입니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이 건은 실증 기반 조성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4번, 창업인프라 지원입니다.

특화 역량 BI의 육성 등을 위해서 예산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증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입니다.

1번, 상권 활성화 사업(제주)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타운 구축 예산을 위해서 6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이 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자율 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삭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1번, 정책자금지원 성과 향상입니다.

내역사업 정책자금이자보전지원 사업은 기술개발사업화 자금의 2025년 대출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53억 1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이차보전 사업의 보전금리를 타 부처 유사 사업의 보전금리 수준인 4.5%p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이미 5.5%p로 지금 5년간 업계와 지원하기로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반발이 우려가 되고요.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훼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타 부처의 경우에 4.5% 적용을 한 것은 오히려 산중위에서 5.5%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예.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부대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규모 감액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2번, 신성장 기반자금(융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혁신성장지원 사업에 대해서 앞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 원안 유지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감액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한 이유는 이게 별도 자금 편성한 게 아니라 기존 융자 예산에서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이 사업도 기존 성장 지원, 혁신 성장 이런 데 AI 응용, AI 우대, AX 우대 트랙 이런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시키지요.

○김동아 위원 이거는 좀 아닌데……

○강승규 위원 논의를 좀 더 해야 된다 이거지. 아까 앞서하고 조금 비슷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이거는 꼭 그 사업 선정 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AI 및 관련 분야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를 무조건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AI 전환과 관련해서 기존 사업에 태우거나 약간 명칭 바꾸거나 이래서 구체적인, 다 예타 면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1000억씩 반영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남겨 놓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그래도 일단은 보류할 때 보류하더라도 차관님이 좀 사업 설명을 하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왜 반대하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야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왜 보류하는지,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이라는 게 뭔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은 지금 저희가 자료는 준비가 됐는데 이따가 보류 안건 논의할 때 설명드리는 것으로 행정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혁신 성장 지원 같은 경우에 신성장 기반기금 자체가 올해 2000억 원이, 내년 안이 이미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 원을 늘려 가지고 여기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 차원에서 기존 사업 범위, 융자 예산 범위 안에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혹시 의견 더 없으시면 일단은 보류하고 그러면 이따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3번,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입니다.

내역사업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에 6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4번 글로벌협력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APEC 혁신센터 지원 강화를 위해 1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5번, 글로벌화 지원 플랫폼입니다.

미국 남동부에 신규로 거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지원을 위해서 7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2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6번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입니다.

감액 의견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창업기반 지원은 앞서 논의하신 바와 같은 논리로 지금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10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앞서 신성장 기반자금과 동일하게 원안 유지안 수용이고 1000억 감액안에 대해서는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역시 저도 신성장 기반자금 용자 사업처럼 이것도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이런 명분 등으로 창업,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또 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해서 같이 함께 논의하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아 위원 잠깐, 이게 똑같은 거 맞나요?

○강승규 위원 다 똑같은, 앞에 다 같은 프린트……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종류가 다르니까 대상이 다른 거고요.

○김동아 위원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관련 기업에 용자를 하는 것은 맞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거 포함해서 AI 관련해서 용자 사업입니다. 다만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은……

○김동아 위원 그건 창업 사업화 자금이잖아요. AI 응용 제품 신속화 상용화랑은 다른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러니까 AX, 신속화 사업 선정 기업과 AI 분야 중소·벤처 기업 대상이고요. 아까 신성장하고 다른 부분은,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은 우수 창업 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아까 신성장은 창업 기업보다는 스케일업 쪽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단계가 달라.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자금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이 건도 보류하고 이따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7번, 재도약촉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에서 신규 지자체 5개 추가 선정에 3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분야 AI 확산 위해서 지역거점(부산)을 추가하고자 7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자체에 한 군데 추가 선정하는 효과로는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는 350억 증액안 통해서 다섯 군데 추가 선정하는 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350억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8번 재도약 지원자금(융자)입니다.

내역사업인 재창업자금에 100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9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입니다.

감액 의견과 또 원안 유지 그리고 증액 의견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6500억 원 감액 의견 그리고 30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3500억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선 2건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6월 모태펀드 미투자액이 최근 5년 평균에 비해서 많은 수준이 아니고 유사한 수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펀드라는 게 보통 3~4년에 걸쳐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투자 여력 보유는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투자액이 있지만 이미 이것들은 펀드의 투자 대상 및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AI를 포함한 미래 투자 전략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AI 딥테크 전략 분야 및 지역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안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1건의 증액안과 원안 유지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대해서 사실 전년대비 이렇게, 전년에 4500억 수준인데 6000억이나 증액해 가지고 일반회계 부담을, 전입 부담금을 이렇게 과하게 책정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이렇게 모태펀드를 과하게 책정하는 것이 운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다 운영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과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 편성에 이렇게 그냥 막 뭉텅거리로 돈을 갖다가 넣는 것이 특징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 부분도 구자근 위원 3000억 얘기했지만 저는 절반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장철민 예.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내년에 1조 1000 중에 사실은 5500억이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로 AI 및 딥테크 기업 투자를 위한 겁니다. 감액이 되게 되면 결국 이쪽 부분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AI 분야에, AI 이름 붙여 가지고 지금 몇 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정부 AI 발표는 10조를 AI 예산에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10조가 20조 되고 100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기존 예산이나 어디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예타 다 면제시켜서 이렇게 뭉텅거리로 넣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봅시다.

○김동아 위원 모태펀드 투자랑 예타랑 상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상관없습니다,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김동아 위원 아니, 왜 지금 AI만 나오면 반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승규 위원 아니, AI만 나와서 반대한 게 아니지요. 저는 AI라는 얘기는 지금 차관이 여기 와서 얘기한 거고 지금 모태펀드가 작년보다도 6500억 원이 늘었는데……

○김동아 위원 아니, 아까 AI 몇 조…… 10조, 100조 하면서 AI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 말씀하시면서 예타도 안 받는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이 모태펀드에 감액 예산을 할 때는, 이게 AI 예산이라는 걸 몰랐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없지요.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올해 4500억이었는데 내년에 1조 1000억으로 늘리겠다니까 너무 과한 예산을 지적했는데, 지금 차관이 그 과한 것 중에 늘어난 것 중에 5500억이 AI다 그러니까 무조건 AI만 붙이면 이렇게 예산이 팍팍 늘려도 되는 거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사실 엇그제 3분기 국내 벤처투자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으로 V자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만 정책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큰 폭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실제로 지금 자본시장에서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가, 스타트업들이나 창업 기업들, 스케일업 시도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한, 자본시장의 뭔가 단비를 맞으면서 성장을 하다가 최근 몇 년간 정말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 스타트업들이나 창업 기업들이 정말로 최근 몇 년간은 그냥 죽겠다 죽겠다 수준이 아니라 돈이 씨가 말라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사실 여러 가지 기회 창출이 차단되어 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경기도 많이 나아지고 여러 가지 AI 전환 관련된 비전 또 엄청난 수준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물밀 듯이 밀려오면서, 내년도에는 정부의 큰 방향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규

모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 분야를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딥테크 전 분야에서 이 정도는 확대할 수 있는 것 같더라는 생각인데.

위원님들이, 특히 강승규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굉장히 세게 가지고 계셔 가지고……

○강승규 위원 이것도 보류하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십니까?

○김종민 위원 감액 의견은 철회하시는 거예요?

○강승규 위원 아니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이것 절반을 감액하자고 하시는 건 너무 많이……

○김종민 위원 여기 보니까 미집행 자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착시예요, 사실은. 보통 4~5년 단위로 펀드 집행이 되다 보면 집행 안 되고 대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항상 그런 자금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불용 예산이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지 마시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통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 20여 년 동안 스타트업 관련된 정책들이나 자금 지원들을 보면 실제로 항상 이런 착시와 통계 때문에 잠깐 멈추거나 잠깐 뒤로 물리면 그 다음 몇 년 동안 매몰 비용이라는 게 생겨요. 기존에 투자되었다가 계속 가야 되는데 후속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시장이 경색되니까 시드 투자해서 조금 올라갔던 기업들이 그다음에 스케일업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주저앉거나 문 닫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태펀드 전체적인 사업은 유지하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AI를 많이 미워하시는데 AI와 관련해서 약간 거품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거지 AI의 적용, 서비스 문제는 정말로 지금 아무리 투자해도 이것은 아깝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과하지 않은 이런 분야거든요, 액수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적은 분야고.

왜냐하면 이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점이 있는 분야예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쟁에서 아직은 좀 후발이긴 하지만 AI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은…… 미국의 블랙록이나 아니면 젠슨 황이 한국에 왜 오겠어요? AI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제조업과 연결돼 있는 IT, 첨단 이 기술력이 한국이 세계 최고다 이래서 오는 거예요. 이 분야가 중기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좀 대범하게 중소기업이 AI 분야로 확 갈 수 있도록 품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허성무 위원 강 위원님, 철회하시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은 보류 건이 여러 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분위기를 보건대 강승규 위원님이 조금 이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진기금 1번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소진기금 지출 부분입니다.

1번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각각 2560억

4100만 원 증액 의견과 그리고 1781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2건의 증액안 중에 첫 번째 실제손실률을 4.14%로 한 2560억 안에 정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2560억 증액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98억 6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백년소상공인 육성에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혁신소상공인 AI 활용지원에 3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 2건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플랫폼사 및 AI 스타트업 등과 협업하여 양질의 AI 툴 활용 교육 영상을 제작, 소상공인지원공단의 지식배움터에 공개하는 등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이 결합된 형태의 교육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혁신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에 특화된 구체적인 AI 교육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참여기관 및 전담멘토 선정 기준을 마련하며 연도 내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AI 활용 및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5790억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말씀……

○소위원장 장철민 차관님, 거기 아니고요 42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증액안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증액안 3건과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이 민감한 건이라 차관님이 거기에 조금 신경이 가셨던 것 같은데요.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3번 소상공인 성장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의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서 9853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 추진 시 사업 지원대상인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크레딧 지원유형인 공과금·4대 보험·통신비·유류비뿐만 아니라 화재공제 또는 민간 화재보험의 보험료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첫 번째 감액안에 대해서는 지금 25만 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소액 지원도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증액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액해 주신다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어서 수용이 가능하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재공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민간 화재보험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결제처가 민간 회사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의 결제가 가능해서 부정수급 우려가 있어서 도입 및 시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는’에서 ‘보험료도’까지만 삭제하는 안으로 대안 제시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사실 소상공인 어려운 것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정부가 재정을 쓰면서 또 소상공인의 대책을 세우면서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2025년 1차 추경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하자 그래 가지고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25만 원이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되지요. 돈 주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게임에도 쓰고 뭐도 쓰고 그런 부정 사례도 나오잖아요. 뭐 그것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한정 언제까지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바우처니 크레딧을 주니 이런 부분이 계속……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가 돈, 재정 쓰는 것 좋아하는 것 아는데 저희들도 돈 쓰는 것…… 왜 우리는 안 주냐고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저기 하나. 그런데 그 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누군가의,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퍼주는 것 할 때, 퍼 준다고보다도 안정바우처니 뭐 좋다고 하죠,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25만 원 주는 것.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정부가 계속 재정 확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 지금 부채가 얼마예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중기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겠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부분 감액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아니라, 이것 제 돈 아니에요, 국민 돈이에요. 저도 주라고 하면 주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죠, 계속. 그렇지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주면 돼요? 저도 주자고 주장할 수 있단니까요. 우리 국민의힘이 벌여 놓고 민주당이 다 씹니까?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 스페셜하게 뭔가 응급 처방한 제도를 어느 순간에 계속 상설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오세희 위원 이걸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소비쿠폰도 했고 부담경감 크레딧을 썼는데 사실은 부담경감 크레딧이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보험료까지 들고 하니까 사용에 대해서 더 호응이 높은 건 이게 더 호응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311만 명이 했잖아요.

무작정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인프라 구성입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없고 불이 꺼져 있다면 지역 상권이 급격하게 소멸되거든요. 지역의 면 단위, 읍 단위 소상공인 가게 없으면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사는 곳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사실 음식점 하나만 해도 지역 상권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상권을 지킴으로써 지역 소멸도 약화된다고 생각해야지, 다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복지라는 것도 있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역의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서 소상공인들이 있음으로써 지역 상권도 유지가 됨으로써 소멸이라든지 지방의 위기가 조금 그래도 늦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과금하고 집합건물도 작년에 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주인, 건물주한테만 나와 가지고 혜택이 안 나왔는데 거기 임대한 사람까지 풀어서, 무엇보다도 반응이 좋은 게 부담경감 크레딧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도와줘?’ 그러지만 이 부분 311만 명이면 사실 굉장한 거예요. 300만 명을 줬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나름 세금을 걷어서 쓸 데 다 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당부드릴게요.

우리 정부가 이것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것 하지 말자 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재정 집행은 약간 특별대책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 그게 구조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하든 현금을 나눠서 하든 하여간 소비를 활성화하거나 촉진하는 이런 정책이 재정적으로 절제된 상태로 집행되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소상공인은 경제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과 사업의 주체인데 사업의 주체는 이런 현금 지원으로 별로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여기는 시장에서의 경영 능력 혹은 시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소비에다가, 소비쿠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코로나 때라든가 이런 때 지원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시장의 사업 플레이어들, 시장 주체들을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시장 친화적인 거지요. 그런데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경영에 의해서 보상받지 않고 이전 소득에 의해서 보상받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아요. 오히려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제가 배달앱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요기요하고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이런 데에 의해서 30%, 40% 가까운 그런 수수료를 떼게 만드는 진짜 야만적인 인프라예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투자,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경영 능력을 보여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직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잖아요. 그런 데다가 돈 이것 10분의 1만 투자해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

든요. 그런 우리 소상공인들이 한 이삼십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개선을 중소기업부가 조금 더 혁신적으로, 도전적으로 고민을 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한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경제 주체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가능한 한 줄여야 됩니다. 줄이면서 인프라를 개선해서 시장의 건강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부가 무슨 기여를 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런 취지에서 사실 내년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경영안정바우처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기요금 포함한 고정비 비용이 많이 상승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의 생존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김종민 위원 그런 것도요 확실하게 뭔가 비상사태다라고 하는 정도가 있어야 현금 지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라든가 불경기의 정도, 대량 실업이라든가 국제적인 경제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을 루틴하게 가져가는 것은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강승규 위원 반대네.

○오세희 위원 아니에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김종민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던 사업이라 이 사업을 유지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업의 정책기조를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권향엽 위원 저 잠깐만……

○강승규 위원 아니, 이것은 계속 유지되던 사업이 아니에요.

○권향엽 위원 계속 유지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언해도 될까요?

○김동아 위원 지원하다가 이름만 바뀌서 유지된 것 맞아요.

○권향엽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1차 추경 때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9869억 7500만 원을 감액했네요. 감액을 하게 된 사유는 어떤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산 사정 감안한 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권향엽 위원 예산 사정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사업이 절실하게, 방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인프라 개선을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던 것이 작년에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 공공요금이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전기요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져 가고 실질적으로 장사는 너무나 다운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산소마스크 꼴듯이 지원한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권향엽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보편적인 예산으로 작년도도 했으니까 올해도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은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런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지속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2023년도인가요? 그때는 전기료 지원했던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다음에는 배달료 지원했고. 올해는 추경으로 했었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배달료는 올해 했습니다. 전기료는 작년에, 배달료는 올해.

○김동아 위원 올해 배달료에다가 또 추경으로 경영안정바우처가 들어왔고. 그러면 거의 한 3년 정도 진행되고 내년까지 하면 4년 되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고정비 지원으로 보시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3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월 매출 1000만 원인데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될까 싶은데. 저는 이것 무슨 부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을 가지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나요? 그런 것 좀 걸러내는 것 제가 저번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시스템이 됐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올해 같은 경우……

○김동아 위원 사업자를 2개 내거나 아니면 본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걸 마련했는지 궁금한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서 복수 사업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김동아 위원 법정 제한은, 그때 한번 제가 변호사나 여기도 다 지원돼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업종 제한도 됐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현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김동아 위원 변호사도 그냥 사업자등록해서 연매출 1억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다중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세청과 협의 중에……

○김동아 위원 이 돈을 가지고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10% 할인해 준다고 하면 지방정부랑 매칭을 하면 한 5조, 10조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할 수 있는 돈인데

아까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순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과금 내는 거지 않습니까? 통장에 들어왔다가 공과금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돈인데 이게 과연 중기부가, 무슨 우리나라에 큰 위기상황이 도래할 이슈가 없는데도 이게 맞는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세희 위원 지금 왜 예산이 5790억으로 책정이 됐나요, 작년에 9800억이었는데? 한 4000억,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금년에 1조 5600억 정도 되고요 내년엔 5790억이니까 거의 1000억 정도 감액……

○오세희 위원 1000억 정도, 이것 무슨 근거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죄송합니다. 1조 정도 감액됐다고 보시면……

○오세희 위원 왜 그것 감액이 됐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일단은 기준이 연매출 3억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좁혀졌고요 인당 지원금액도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세희 위원 25만 원으로 책정해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오세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면 1억 400이면 연봉이 안 됩니다, 큰 기업의. 이것을 과연 이렇게 기업가라고, 현장에 없다 그게 아니라 사실 가족까지 한 지방 쪽에는 1억이 안 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 자기 사업을 하지만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꼭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식으로 이런 걸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배달료를 준다, 저는 배달료는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달료는 그 플랫폼에서 상생해야지 왜 정부가 대줍니까? 배달료는 올리고 정부가 지원하고, 그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아직 그 현장이 너무도 어렵잖아요. 폐업률도 지금 더 극대화되고 있고 온라인 시장도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1조나 깎았는지, 왜 25만 원을, 전기료는 또 올라가고 있는데, 정확한 연구용역이 있어서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이것 했으니까…… 아니, 어려우면 루틴으로도 할 수 있지 왜 루틴으로 못 줍니까? 어려우면 할 수도 있지, 지금 폐업이 100만이 넘어가는데. 국민들이 아니겠어요? 전 재산 다 날리고. 아니, 2000억 갖고 해도 좋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조도 깎고 감액도 하지 무조건 뺐으니까 25만 원으로 낮추고 1억 400, 1억 400이면 1000만 원이 안 돼요, 800만 원이잖아요. 월 8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아까 말했지만 지역 살리기 그런 것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누구 도와줘요?

저는 이것은 다른 것을 절약하고라도 해야 된다,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소비도 좀 촉진하고. 그래서 이것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이유로, 나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이것을 1조를 깎나, 해봤자 1조 50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깎나, 이걸 아니라고 보거든요. 50만 원 준 것 25만 원 주고. 아예 주지 말지요. 지나가는 사람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가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보면. 그런 것들 좀 소비 촉진 하자, 못 사는 사람 좀 돌보자 이런 차원에서든 충분히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증액안에 동의, 저희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아 위원 차관님, 대통령께서 이런 것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더 배려하도록 차등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 지금 계획돼 있어요?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현재는 안 돼 있는데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되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부가 어쨌든 소상공인, 특히나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원책을 해야 될 텐데 간이과세 사업 기준인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증빙을 국세청이든 중소기업부든 디테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의 도움이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우처 형태로, 어떤 종류의 지원들을 할지를 선택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저희가 그냥 시혜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부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하는데 간이과세 기준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바우처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우처 형태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종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결정되는 액수만큼 시혜적으로 준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성장지원 이 항목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장지원이라고 하면 정말로 진짜 위기, 매출이 충분히 많았었는데 간이과세사업자가 된 분들라든지 아니면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출 성장단계에 있는 분들라든지 그런 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성장을 도모하기 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조금 더 차등화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설계들이 조금 더 있으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시혜적인 이전 지출이 아니라 정말로 간이과세사업자 수준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두텁지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지원책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텐데 그냥 200만 명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제도의 목적성이라는 취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잘 안 보이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보류해서 저희가 조금 이야기는 해보고 결정하긴 하겠지만 이후에 오늘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은 반영해서 이 사업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 그 이후에는 감액 의견이 거의 없고 증액 의견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심사를 끝까지 다 하고 보류해서 보류사업들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한 가지, 아까 오세희 위원님 말씀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

간 잘못 전달했는데 제가 배달 관련해서 배달비를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사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프라와 생태계를 지원하자는 건데 배달 관련해서는 배달앱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공공이 개입해서 건전화시키고 상식화시키는 게…… 지금 비상식적이에요. 이런 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라는 거예요, 배달비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성장지원인데 이런 식의 현금 지원은 성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비상지원이에요. 소상공인 비상지원사업이지,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내역 자체부터 약간 수정을 해야 돼요. 성장지원은 인프라와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혁신역량 이런 것도 좀 신경쓰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4번 소상공인 특화지원 사업입니다.

클린제조환경조성에 118억 원 증액 그리고 지역소공인육성에 65억 1200만 원 증액, 도체교육센터 운영에 10억 1400만 원 증액 그리고 판로개척지원 대상 확대에 34억 6100만 원 증액 그리고 디지털아카이브 ISP 용역비에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인프라입니다.

소상공인 상생협업화에 5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사업에 2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다음 7번,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에 870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역사업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사업 지원에 20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증액안에 대해 모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사안들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시장상권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509억 6000만 원 증액 그리고 지역상권 육성에 80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71억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몰 활성화에 45억 원 증액 그다음에 전통시장 육성에 8억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상도, 사당1동 문화관광형 시장 2곳 추가 지원에 10억 원 증액 그리고 경북 구미 선산골창 특화 골목 조성에 2억 5000만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상권 홍보 및 조사평가에 9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상연 활동 지원

에 7억 원 증액 그리고 시장경영지원 성대, 상도, 남성역골목시장 3곳 추가 지원을 위해서 1억 4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스포츠문화와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대전 중구 은행동 상점가를 포함하고 스카이라드 전광판 운영비, 콘텐츠 송출장비, 야외 이벤트 운영 등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동의하지 않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10억 원과 2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2건 모두 특정 시장의 선정을 전제로 해서 증액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되지 않은 특정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을 통해 예외 선정하는 것은 이 사업의 일관성 및 형평성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건의 증액안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52페이지도 밑에 보시면 1억 400만 원 증액의견도 특정 시장을 지정하셔서 증액을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구 은행동 상점가를 포함한다’라는 표현이 좀 특정 지역에 너무 한정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문화와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상권별 특성에 맞는 지역상권 육성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로 대안 문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저기 있잖아요 지금 특정 지역이 포함됐다는 것 등에 대해서 그러면 상도, 사당1동 다 빼고 문화관광형 그다음에 경북 구미나 이것도 다 빼고 전통시장이 사업에 증액하는 거는 동의할 수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냥 증액을 시켜 놓은 다음에 협의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지 이거 특정을 시키면 어떻게 예산이 통과가 돼, 이게.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빼야지.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특정 시장을 명기하는 것만 제외하고 금액 부분은 합산해서 증액의견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수정 의견을 다시 드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역문화와 연계된 거는 지금 문광형 시장도 그렇고 있는데 이게 대전 중구 지역에 한화이글스 홈구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 원도심상권 조금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역문화와 연계된’ 말고 ‘지역 프로 스포츠와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부대의견도 남기고 이후에 중기부에서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지역문화가 아니라 아마 저희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프로 스포츠가 점점, 요즘 프로 축

구도 굉장히 관중 수가 많이 늘고 있던데 그것과 연계한 주변 상권 활성화 사업들이 아마도 큰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그냥 단순 지역문화가 아닌 프로 스포츠로 해서 부대의견에 달아도 괜찮으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렇게 해서 부대의견은 수정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기부에서 따로 말씀 주신……

○강승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걸 ‘프로 스포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등’ 이렇게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스포츠 마케팅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한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지만 ‘프로 스포츠’라고 꼭 할 필요 있나요? ‘스포츠’라고 하면 안 돼요?

○소위원장 장철민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강승규 위원 프로 스포츠라고 하면 굉장히 한정돼 있을 것 같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는 빼고, 하여튼 문구는 이후에 저희 정회 하는 시간에 조금 더 협의해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부에서 따로 의견 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그대로……

○오세희 위원 잠깐만 좀……

○소위원장 장철민 말씀하십시오.

○오세희 위원 51페이지 내내역사업 청년몰……

○소위원장 장철민 마이크 좀……

○오세희 위원 51페이지 내내역사업 청년몰인데 이걸 청년상인 지원사업 개개인을 좀 하자고 그랬거든요, 이게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년상인 지원사업’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몰’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청년몰’ 대신 ‘청년상인 지원사업’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또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내역사업 청년몰 활성화는 일단 내내역사업 제목 변경을 반영하기로 하고요. 중기부에서 따로 주신 의견도 반영하고 특정 시장 명기는 삭제하고 금액은 합산하는 방식으로 증액 정리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지역 스포츠와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반영 방식으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성소미 9번, 소진기금 인건비입니다.

소진공 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18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임직원 처우 개선과 서대문센터 신설을 위해서 20억 2200만 원 그리고 역시 공단 임직원 처우 개선과 경산센터 신설을 위해서 20억 22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진기금 기본경비입니다.

소진공의 기관 운영 필수경비 부족분 7억 53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 외에 서대문센터 신설을 위한 12억 6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 또 기관 운영 부족

분과 경산센터 신설을 위해서 9억 95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진기금 정보화경비입니다.

재해복구센터 구축 ISP를 위해서 8억 27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쿼커머스 상권 영향 실태조사 및 상생지원 기반 구축인데 이 부분은 신규 세부 사업을 신설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일단 18억 1500만 원 처우 개선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밑에 보면 같은 금액이 합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서대문센터 신설 2억 700만 원과 경산센터 신설 2억 700만 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아마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거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서대문……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정부 의견을 다 듣고 그다음에 의견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다음 소진기금 기본경비 쪽도 3건의 증액안 중에 필수경비 부족분 7억 5300만 원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서대문센터 신설 5억 700만 원과 경산센터 2억 4200만 원을 합산하는 금액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후 건도 다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이후 건은 다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산하면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건비, 서대문센터, 경산센터 이렇게 지금 합산이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22억 2900만 원으로 합산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서대문센터하고 경산센터 수요조사는 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서대문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 22만 개 사업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이 한 10만 개 정도 되는데 업무 부담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산센터도 임시 운영 중인데 경주에서 파견된 2명의 직원이 하고 있어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대문센터는 현재 서울에 있는 7개 소상공인센터가 평균 22만 개의 사업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 대비 업무 부담이 높고요. 특히 서울중부센터가 24만 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서대문센터 신설을 통해서 서부권의 전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북 24개 기초지자체 중에 세 번째로 업무 비중이 높고 전담센터 신설 필요성이 높고요. 현재는 임시로 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수요는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수요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앞서 차관이 정리한 대로 인건비 18억여 원 그리고 서대문센터·경산센터 신설 예산을 증액 반영하고 그 이후에 소진기금 정보화경비와 퀵커머스 관련된 증액 사안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없애는 거잖아요. 다 합쳐서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9번 항목과 10번 항목을 다 합쳐서……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9번끼리 합치는 거고요. 위원장님, 10번은 항목이 세부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원장 장철민 10번은 그러면 3개 다 증액을 하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필수경비 부족분 7억 5300만 원이 동일하게 3개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다가 서대문센터 신설 5억 700과 경산센터 신설 2억 4200만 원을 합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방금 차관이 정리한 대로 증액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헛갈리네요.

그러면 그 이후의 심의 항목에 대한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 사안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정회 시간 간에 협의 정리된 사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사업 중에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관련된 사업은 15%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했고요. 데이터 인프라구축 KAMP 관련된 사업은 20% 감액,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은 2억 감액, 창업사업화지원 특화창업패키지 홍대 글로벌 창업 허브 건물 관련된 사업은 증액안 30억은 없는 것으로 하고 기존 사업비의 10% 감액.

그리고 신성장기반자금(융자) 혁신성장지원 융자사업, 혁신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각 200억 감액,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사업 1000억 감액, 보류되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사업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정리한 내용을……

○강승규 위원 여기에 그게 다 들어 있어요?

○소위원장 장철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고된 겁니다. 개별 사업은 그냥 제가 아까 정리한 내용 보고를 드린 거고요.

○강승규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전문위원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 소위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안 등 세출·지출 수정내역이 8890억 69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1624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뒤에 첨부한 바와 같이 총 11건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지금 배포된 자료와 방금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33번 거브테크 스타트업 특구 조성 및 육성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제안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니까 기존의 AX창업허브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입니다. 이게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게 신규로 가는 것보다는 AX창업허브사업에 증액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일종의 내역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주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일반 33번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것과 관련된 사항에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이 회의 후에 소위원장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중소기업부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부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소미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승규 권향엽 김동아 김종민 박상웅 오세희 장철민 정동만 허성무

○청가 위원(1인)

구자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황영호

기획재정담당관 이하녕